

## 기독교 대학의 비전과 소명의식

박찬호 (기독교학부 조직신학)

### I. 대한복음신학교의 개교

신학교를 졸업한 장종현 목사(당시 전도사)는 신학교를 시작하겠다는 결심으로 오산리금식기도원에서 기도에 전념하였다. 장 목사는 영적 은사인 김영철 목사의 기도를 받고 신학교를 시작하고 싶었다. 하지만 김영철 목사는 신학교를 하겠다고 하는 장 목사를 만류하였다. “무슨 놈의 신학교냐. 목회를 해라.” 김영철 목사는 축복기도는 고사하고 신학교를 하겠다는 장 목사의 생각자체를 받아주지 않았다. 신학교를 시작하는 것을 허락해주기를 청하기 위해 세 번을 찾아간 장 목사가 안쓰러웠는지 김 목사의 사모가 옆에서 거들었다. “당신이 뭔데 하겠다는 것을 막느냐? 허락해주세요.” 마지못해 김 목사는 “알아서 하라”고 허락을 했다. 그리고는 당부의 말을 이어갔다. “밥 빌어 먹으려고 학교 하지 마라. 하나님은 돈도 많고 능력도 많다. 사람에게 손 벌이지 마라.” 이렇게 해서 장 목사는 1976년 11월 1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18의 3번지에 대한복음신학교와 대한복음선교회를 설립하고 초대 이사장과 교장에 취임하였다.

일단 학교의 이름이 “복음”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부흥을 경험하고 그 열매로 온 세상에 선교하기 위해 보다 분명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부흥과 선교보다 우선되는 가치가 복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학교의 이름은 나중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라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주 명제에 다시금 등장하게 된다.

백석총회 홈페이지에 있는 대한복음신학교 설립과 관련한 내용을 참조하면 백석학원의 설립정신으로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성경의 우선적인 권위이다. 둘째는 사도적 신앙고백에 대한 관심이다. 그리고 셋째는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체계이다.

1. 성경의 우선적인 권위를 강조하는 설립정신은 개혁주의 5대솔라 가운데 “오직 성경”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가운데 첫 번째 “신앙운동”에 잘 나타나 있다.

2. 사도적 신앙은 대표적으로 사도신경으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백석학원이나 백석총회는 기독교회의 바른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공교회 신앙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 그리고 칼케톤 신경과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받아들인다.<sup>1)</sup>

3. 개혁주의신학은 사실은 매우 폭이 넓은 개념이다. 일단은 크게 나누면 우리나라 보수적인 장로교회에 영향을 미친 문서 3가지를 들라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과 벨코프 『조직신학』과 존 번연의 『천로역정』이다. 존 번연의 『천로역정』에 대한 것을 차치하고 생각해보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 영국과 미국의 장로교 신학의 개혁주의신학이다. 그런가 하면 벨코프의 『조직신학』은 화란 개혁파교회의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벨코프의 배후에 있

1) 장종현, 『설립목적과 정체성』 (서울: 총신출판사, 1997), 54.

는 권위인 바빙크와 카이퍼의 신칼빈주의의 영향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사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호주 등의 장로교회가 초창기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하지만 미국 개혁교회는 우리나라 선교를 하지 않았다. 물론 언더우드 선교사는 뉴브른스윅이라고 하는 개혁파교단의 신학교를 나오기는 하였지만 미국 북장로교의 파송을 받았다.

학교설립 목적에 나타나 있는 인재상은 세 가지다.

첫째 / 학문적 탐구에 정진하여 성경을 비롯한 전공 분야에 정확하고 풍부한 지식을 터득케 함으로 교사적 기능을 겸한 능력있는 사명자가 되게 한다.

둘째 / 성경을 생활의 규범으로 하는 신앙 훈련과 깊은 체험을 통하여 헌신적인 복음 증거자와 영적 목회자가 되게 한다.

셋째 / 성경적 가치관과 전인상을 함양하고 기독교적 문화창달과 사회 개발정신 및 윤리관을 정립하여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케 함으로써 사랑과 희생으로 봉사하고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교회적 사명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지도자가 되게 한다.

각각의 인재상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성경”이다. “성경을 비롯한 전공 분야에 풍부한 지식을 터득”하게 하고 “성경을 생활의 규범으로 하는 신앙훈련과 깊은 체험”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과 전인상을 함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세 번째 인재상에서 “기독교적 문화창달”과 함께 “생명의 존엄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교회적 사명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지도자”를 길러내겠다는 포부를 피력하고 있다.

## II. 복음 총회의 설립

장종현 목사는 대한신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 지난 1978년 2월 12일에 대한예수교감리회 총회(당시 상도동 소재)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흥미로운 것은 감리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신학은 대한신학교에서 개혁주의신학을 공부하였는데 목사 안수는 감리교에서 받은 것이다. “장종현 목사의 신앙이 개혁주의 신학 위에 서있으면서도 감리교의 열정적 신앙 색조를 띠고 있는 것은 그의 신앙적·신학적 여정의 귀결이라 할 수 있다.”<sup>2)</sup>

대한복음신학교를 시작한 후 2년이 가까워오던 1978년 9월에 대한예수교장로회 복음총회가 설립되었다. 학교의 이름에 이어 총회의 이름에도 “복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백석총회의 전신인 복음총회는 서양의 선교사들이 세운 총회도 아니고 기성 교단에서 분리하여 나온 교단도 아니다. 이른바 자생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복음총회의 교단선언문에 나타난 총회의 사명은 세 가지다. 첫째는 사도적 신앙고백의 터 위에 진정한 성경적 교회를 수립하는 것이다. 둘째는 나라와 민족과 지역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셋째는 성경적 기독교 유신론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일반은총 분야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개발 정진시켜 나아가는 것이다.

복음총회의 교단선언문에 나타난 설립정신은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과 사도적 신앙을 승계하겠

2) 『백석학원 40년사』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16), 28.

다는 면에서는 복음신학교의 설립정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보다 구체화된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개념적으로 정교하지 않은 면도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첫 문장의 “신률적 복음주의”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다. 그리고 “우리의 교리적 입장은... 역사적 개혁이다”라는 말도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이다. “우리의 교리적 입장은... 역사적 개혁주의신학이다”라고 바로잡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나중에 1989년에 채택된 합동정통의 신학 노선의 도움을 받아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1989년에 나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정통) 노선”은 신율주의를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 또는 율법폐기론의 입장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율법인 도덕 율법을 크리스찬 생활의 기준으로 삼는” 입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교권주의와 같은 타율주의도 배격하고 있으며 인본주의적 자율주의로서의 자유주의도 배격하고 있다. 이런 신율주의적 입장을 우리는 역사적 개혁파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9장에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라는 항목에서 발견할 수 있다.<sup>3)</sup>

크리스찬은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시작해야 하되 행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모든 일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찬의 생활이며 동시에 우리의 신조가 고백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한다.<sup>4)</sup>

그런 의미에서 복음총회 교단선언문에 나오는 신율주의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 특별히 구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구약의 연속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입장을 이르는 신율주의 또는 신법주의와는 다른 것이다. 보통 구약과 신약의 불연속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주장을 세대주의라고 한다면 세대주의와 반대되는 입장이 신율주의라고 할 수 있다. 신율주의는 구약성경을 모든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도덕적 의를 영구적으로 타당하게 표현한 것으로 추앙한다.<sup>5)</sup>

현대를 위한 구약 윤리에서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Wright, 1947- )가 신율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제시하고 있는 사람은 “기독교 재건주의”(Christian Reconstructionism) 운동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교회가 사회를 재건하고 정당한 ‘지배권’(dominian)을 행사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한 지배권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구현할 신정정치적 정부를 세운다는 뜻이다. 이 낙관주의적 비전은 쉽게 승리주의로 전락한다. 신학적으로 이들의 비전은 전천년설이 세대주의의 특징과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후천년적 종말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운동의 기초를 놓은 창사자는 루사스 러쉬두니(Rousas Rushdoony, 1916-2001)이었지만 이 운동의 성장은 그의 제자 그렉 반센(Greg Bahnsen, 1948-95)의 신학 저술과 개리 노스(Gary K. North, 1942-2022)의 대중적이고 좀 더 경제학에 기울어져 있는 저술들과 연설을 통해 이루어졌다.<sup>6)</sup>

사실 구약과 신약의 관계, 특별히 구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신율주의는 구약의 내용들을 모두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고자 한다. 예컨대

3) 장종현, 『설립목적과 정체성』, 95.  
4) 장종현, 『설립목적과 정체성』, 106.  
5) Christopher Wright,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 김재영 역 (서울: 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6), 562.  
6) Wright,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 564.

구약의 토지법을 현대 사회의 경제구조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주장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구약의 사회법이나 형법을 현대 사회의 법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 또한 신율주의의 한 실례가 될 것이다. 이런 신율주의보다 한국 교회에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세대주의이다.

세대주의(dispensationalism)는 신율주의와는 반대로 신구약 성경의 불연속성을 많이 강조한다. 율법과 복음을 날카롭게 구별하는 루터 교회의 주장도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를 비롯하여 인류의 역사를 일곱 세대로 구분하는 세대주의와 일면 통하는 부분이 있다. 구약 가운데 있는 율법,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은혜의 요소들을 세대주의는 정당하게 취급하지 못한다.

개혁주의신학은 이러한 세대주의뿐 아니라 신율주의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한 마디로 개혁주의신학은 언약신학을 통해 신구약 성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함께 견지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주의생명신학은 언약신학을 따라 성경이 점진적 계시를 기록하고 있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성경을 통일성 있게 파악하고자 한다. 물론 성경을 통일성 있게 조망할 수 있는 통합적인 주제가 언약 밖에 없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예컨대 하나님의 나라나 공동체라는 통합적인 주제를 통해서도 성경을 통일성 있게 파악할 수 있음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언약이라는 주제가 성경에 대한 통일성 있는 조망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교단선언문에 나와 있는 “전통주의”는 사도적 신앙을 비롯한 전통을 중시한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권위는 두 가지이다. 성경과 전통이 그것인데 성경은 “규범을 만드는 규범”(norma normans)이라면 전통은 “규범화된 규범”(norma normata)이다.

니콜라스 월터스토롭(Nicholas Wolterstorff, 1932- )는 “전통은 죽은 사람들의 살아있는 신앙이요 전통주의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죽은 신앙이다”(Tradition is the living faith of the dead, traditionalism is the dead faith of the living)라고 말하였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전통주의’는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자신이 속한 교회 전통 또는 전승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필요하고 좋은 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자신이 속한 교회 전통만이 올바르다는 독선적인 주장으로까지 나간다면 전통주의의 오류에 빠지고 만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 시대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고백만을 앵무새 마냥 되내이고만 있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이러한 전통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하지만 반대로 전통을 도외시하고 현재적인 조류만을 뒤쫓아가는 현대주의에 빠져서도 안된다.

전통주의가 시류와의 영합을 거부하고 어떤 것이 이 시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것은 고민하지 않은 채 옛 것만을 고집하는 극단이라면 현대주의는 반대로 시대적인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다가 우리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상실해버리는 경우를 말한다. 교의학의 중요한 서로 상반되는 듯한 두 가지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재생적 (혹은 요약적) 기능’과 ‘생산적 (혹은 새롭게 표현하는) 기능’일 것이다. 전통주의는 ‘재생적 기능’에만 과도하게 집착하는 자세라고 한다면 현대주의는 ‘생산적 기능’에만 전념하는 자세이다. 이 두 가지 기능이 서로를 교정해 줄 때 바른 교의학이 성립한다. 즉 재생적 기능이 없는 생산적 기능은 현대주의로 변질하며, 생산적 기능이 없는 재생적 기능은 전통주의로 퇴락하고 만다.<sup>7)</sup> 개혁주의생명신학은 개혁주의

7) Horst Pöhlman, 『교의학』, 이신건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4), 35.

신학을 표방함을 통해 우리가 현대주의로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함과 동시에 생명신학을 표방함을 통해 우리가 전통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바야흐로 우리는 점점 더 교단적인 색체가 얽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교회 이름에 교단 이름을 붙이는 것이 상례였다면 이제는 ‘공동체’(community) 등을 교회 이름으로 사용하는 시대이다. 교단적인 색체가 얽어지는 것은 꼭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교단들, 특별히 같은 기독교인 형제 자매들의 교회들을 향해 대립의 각을 세워오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마치 다른 신학적인 입장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을 주적(主敵)으로 오인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다. 우리의 원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엡 6:12)이지 우리와 다른 교단의 교회 교인들일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교단적인 색체가 얽어지는 것은 시대의 대세요 바람직한 면이 많이 있다. 요는 자신이 속한 전통(tradition)에 대한 독선적인 태도를 버림과 동시에 정당한 자부심마저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우리는 모두가 똑같아져야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인정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일반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교단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소양을 갖추게 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전통을 존중해야 하지만 전통주의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주의는 반대해야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19세기 찰스 하지를 비롯한 구프린스턴 신학은 정통 칼빈주의를 지켰지만 시대의 흐름에 제대로 반응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찰스 하지(Charles Hodge, 1797-1878)는 1812년에 설립된 프린스턴 신학교(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에서 프란시스 튜레틴(Francis Turretin, 1623-87)의 『변증신학강요』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조직신학을 가르쳤는데 그는 1872년 교수생활 50년을 맞이하는 기념석상에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새로운 신학사상이 결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데 나는 감히 주저하지 않는다”(I am not afraid to say that a new idea never originated in the seminary)라고 말했다.<sup>8)</sup> 하지만 이런 찰스 하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여러 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에게는 스코틀랜드 상식철학의 영향이 있었기에 당시의 전체적인 지성의 흐름이었던 합리주의에 경도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종말론에 있어서도 당시의 시대의 흐름이었던 후천년설을 주장하였다. 스스로 자신이 윗 세대 개혁주의신학자들의 사상에 아무런 새로운 것도 더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사실과도 맞지 않고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찰스 하지는 벤자민 워필드(Benjamin Warfield, 1851-1921)와 함께 우리나라 보수적인 장로 교회의 신학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구프린스턴신학(old Princeton theology)을 대표하는 신학자이다. 마땅히 한국교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신학자임에 분명하지만 별반 우리나라에서 많이 연구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구프린스턴신학은 1929년 웨스트민스터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가 프린스턴신학교로부터 분립되어 나가기 전의 신학 즉 프린스턴의 신학이 이른바 자유주의화되기 이전의 신학을 통칭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와 워필드를 비롯한 구프린스턴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일단 긍정적으로 그

8) A. A. Hodge, *Life of Charles Hodge* (1880), 521.

들을 평가한다면 격변의 시대 가운데 정통 개혁주의신학을 지켜낸 사람들이라는 공로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한 신학자들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19세기 서구 개척 시대였고 이른바 부흥의 시대였다. 19세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회중교회와 장로교회가 다수를 이루었던 미국은 100년이 지나 감리교회와 침례교회가 다수를 이루는 교세의 변화를 경험하였고 현재적으로 보면 침례교회가 개신교의 다수를 점하고 있고 그 뒤를 감리교회가 잇고 있다.

1997년에 발간된 『설립목적과 정체성』에서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의 신학적인 노선에 대해 “역사적 개혁주의 입장”과 함께 “전통적 정통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복음총회 교단선언문에 나와 있는 전통주의는 정통주의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리라 사료된다. 전통을 중시하지만 전통에 지나치게 매이지는 않는 것이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의 신학사상에 보다 더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대한복음신학교 설립 정신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일반 은총”(common grace)이 복음총회 교단 선언문에 들어가 있는 것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한복음신학교 설립정신에는 문화창달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일반은총 분야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개발 정진시켜 나아갈 것”을 사명으로 천명하고 있다. 이 부분은 기독교대학과 관련하여 그리고 개혁주의생명신학의 7대 실천운동 가운데 “하나님나라운동”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III. 예장 합동정통 시대

1978년 설립된 자생교단인 복음총회는 이듬해인 1979년 합동비주류측 함북노회와 평북노회가 교단에 가입하게 되었고 1980년 9월 3회 총회에서 교단 이름을 “합동진리”로 변경하게 된다. 1981년 12월 29일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측과 합동총회를 통해 교단의 통합을 이루었으며 이듬해인 1982년에는 총회의 이름을 예장 “합동정통”으로 개명하게 되었다. 이른바 “합동정통”이라는 교단의 이름은 무려 27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금의 백석총회를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다.

1989년 9월 20일 예장 합동정통의 「교단 노선 선언문」 발표되었으며 이것은 1997년의 『설립목적과 정체성』에 게재되었으며 2003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정통) 총회역사 (1978-2002)』에도 수록되어 있다. 이 선언문은 총회 정착을 위한 구체적 교육 강화와 총회 대외 홍보 강화를 목적으로 28개 노회 646명의 총대가 참석한 1989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정통) 제74회 총회에서 교단선언문으로 채택되었다. “교리, 정치, 생활, 본 교단의 사명, 본 교단의 대외노선”의 다섯 항목으로 구성된 12쪽 분량의 교단선언문은 복음총회 교단선언문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으며 개혁주의신학의 입장을 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밝힌 것이다.<sup>9)</sup>

선언문의 앞머리는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인용함으로 시작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하는 일이 허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선언문은 일치된 기독교 상을 정립하지 못함을 부끄럽

9) 용환규, “개혁주의생명신학의 토대인 백석총회의 신앙고백 연구,” 『생명과 말씀 7』 (2013), 143.

게 여기며 회개하고 있다.<sup>10)</sup>

이어지는 단락에 있는 세계의 장래는 “칼빈주의의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표현은 과도한 표현으로 사료된다. 하나님은 어떤 교파나 교단의 하나님만은 아니시다. 초대교회 이래로 교회사 속 격언이 된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신 하나님(*Deus semper major*)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를 택하셨고 기독교 중에서 가톨릭인 구교보다 개신교를 택하셨고 개신교 중에서도 루터보다 칼빈을 택하셨음도 지나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마치 역사적 개혁주의신학의 입장에 선 장로교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생각은 매우 배타적인 태도이기에 지양해야할 자세라 할 수 있다.<sup>11)</sup>

다행히 장로교 가운데서 합동정통 총회만을 택하셨다는 표현은 하고 있지 않다: “또 이 장로교 중에서도, 해방 후 여러 교파가 분열되는 상황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전통적으로 계승되어온 장로교 교단이었던 연합측 총회와 진리측 총회가 합동하여 합동정통 장로교로 하였다.”<sup>12)</sup> 아쉬운 것은 1978년 복음총회의 설립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마치 합동정통 교단이 기존의 두 총회가 통합하여 설립된 교단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교단은... 1981년에, 분열이 아니고 합동하여 정통으로 출발함은 깊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sup>13)</sup>

용환규 교수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의 토대인 백석총회의 신앙고백 연구”라는 논문에서 예장 합동정통의 「교단 노선 선언문」의 1부 교리와 2부 정치 그리고 3부 생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sup>14)</sup>

제1부 교리 편에서는 성경과 교리의 관계를 논하고, 성경관이 불분명한 현대 신학을 비판하면서, 개혁주의 교리의 역사를 간략히 설명한 뒤, 총회의 노선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적 개혁주의 입장”임을 분명히 하였다. 제2부 정치 편에서는 장로교 정치가 “성경적 교회의 고유한 정치”이며 “믿음과 이성의 판단에 의하여 최상의 교회 정치 형태”라고 하였다. 교회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마도 국가권력과 교회의 관계일 것으로 보고, 기본적으로 영영주권론에 입각한 정교분리를 주장한다.... 제3부 생활 편에서는 율법주의와 율법폐지론을 함께 반대하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시작해야 하되 행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밝힌다.

2006년 당시 합동정통 교단과 기독교신학대학원의 신학적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백석학원 신앙선언문』은 74회 총회의 「교단 노선 선언문」에 대해 그 내용에 있어서 역사적 개혁주의 전통에 충실하기는 하지만 시대의 변화와 신학의 발전에 따라서 좀더 정교한 새로운 “신앙선언문”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sup>15)</sup>

예장 합동정통의 교단선언문은 나름의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선언문의 내

10) 장종현, 『설립목적과 정체성』, 89.  
11) 장종현, 『설립목적과 정체성』, 90.  
12) 장종현, 『설립목적과 정체성』, 90f.  
13) 장종현, 『설립목적과 정체성』, 97.  
14) 용환규, “개혁주의생명신학의 토대인 백석총회의 신앙고백 연구,” 142f.  
15) 『백석학원 신앙선언문』, 26.

용은 현재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읽고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수정해야 할 것은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개혁교회가 이전의 고백을 고집하지 않았고 매 시대마다 새로운 신앙고백을 내놓았음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 5월 설립된 백석신학연구소가 총 4부 193쪽으로 백석학원 설립 30주년이 되는 2006년 11월 1일에 출간한 『백석학원 신앙선언문』에 대하여 용환규는 장로교단과 개혁신학의 정립을 위해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sup>16)</sup>

백석학원과 총회가 독특한 출발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서로 상호보완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온 점은 괄목할 만한 사실인데, 특별히 백석학원이 총회의 신앙 확립과 신학적 정체성 마련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해온 점은 백석총회가 현재 한국장로교회에 행사하고 있는 영향력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일이다.

27년 동안 이어졌던 합동정통 시대는 2009년에 막을 내리게 되었다. 총회의 이름을 학교의 이름과 같은 백석이라는 교단의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다. 바로 2009년 제94회 총회에서의 결정이었다. 2011년에는 총회의 회기도 96회에서 백석총회 34회로 수정함으로 백석총회가 1978년 설립된 복음총회를 그 뿌리로 함을 분명히 하였다.

2010년 백석총회는 여성 목사 안수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2014년에는 여성 목사 교단 가입이 허락되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총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총회관을 구입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2017년에는 현재의 총회관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는 총회장 장종현 목사의 솔선수범하는 리더십과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제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백석총회는 교세로 보면 한국교회 3대 교단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8년이 지난 시점에서 45년이라고 하는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놀랍게 성장하게 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IV. 신학교에서 종합대학으로의 용비

1976년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서 시작한 대한복음신학교는 1978년 5월 당시로서는 관악구 동작동, 지금으로서는 서초구 방배동으로 교사를 이전하였다. 1980년 5월 총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진리)’를 구성하면서 학교 명칭이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진리) 인준 총회신학교’가 되었다. 이른바 ‘총회신학교’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백석학원 설립 5주년인 1981년 11월 서울 방배동에 당시 학교 명칭을 따라 총신교회가 설립되었다. 현재 백석대학교회(서울)의 시작이었다. 1994년 3월에는 천안 캠퍼스에 기독교대학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의 백석대학교회(천안)이다. 그리고 백석학원 37주년인 2013년 11월에는 천안 시내에 청수백석대학교회가 설립되었다.

1983년 8월 30일에는 백석예술대학교의 전신인 총신고등기술학교가 설립 인가를 받았다. 복음전파에 힘쓰는 목회자 양성을 목표로 하던 것에서 진일보하여 다양한 방면에 기독교 인재를

16) 용환규, “개혁주의생명신학의 토대인 백석총회의 신앙고백 연구,” 148.

양성하는 쪽으로 한 걸음 내딛게 된 것이다.

1988년 2월 1일(월요일)에는 『기독교연합신문』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1994년 3월 1일 백석대학교의 전신인 기독교신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의 전신인 천안외국어전문대학이 천안에서 개교하였다. 기독교신학교는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 기독교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한 후 1997년 천안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으며 2006년 백석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학교의 이름에 처음으로 백석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2002년 총신예술학교가 교명을 백석예술학교로 변경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신국원은 백석학원 건학 45주년을 기념한 초청 강연인 “기독교대학의 정체성과 사명”에서 현 기독교 대학의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 세 가지 모델은 (1) 명문 대학교 (2) 신학 대학교 (3) 특성 대학교인데 이는 역사적, 사회 문화적 모델이며 신학적 범주는 아니다. 먼저 신국원은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미션 스쿨이 가지고 있었던 넓은 비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기독교대학이 우리나라의 근대 고등교육을 선도하였는데 이는 신학교육에 국한 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고등교육이 복음 전도의 중요한 전략적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의미하며 초기 기독교 대학들은 민족주의 정신과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기도 하였다.

신국원이 제기하고 있는 첫 번째 기독교 대학 모델은 명문 대학교 모델이다. 우리나라에서 긴 역사와 큰 규모를 갖춘 연세 대학교와 이화 여자 대학교가 그 대표라 할 수 있다. 이들 대학은 이른바 학문적 수월성과 사회적 인정을 갖춘 일류대학교라고 할 수 있지만 세속화로 인한 정체성의 상실로 명목상의 기독교 학교로 변질되고 말았으며 신앙과 학문의 이분화로 기독교적 연구 센터 기능이 약화되거나 소실되고 말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신국원이 제시하는 두 번째 모델은 신학 대학교 모델이다. 신학교에서 출발해 제한적으로 확장을 한 장신, 감신, 고신, 총신대학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대학들은 오랜 교단 신학교적 관성을 가진 교회 지도자 양성 기관이라는 의식 하에 신학과 신앙 정체성 유지를 위한 제한적 학생 선발과 교직원 채용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좁은 관점과 신학적 정체성으로 인하여 주류 학문 세계와 단절되게 되고 사회 문화적으로 세상과 연관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 번째 모델은 특성 대학교 모델인데 학교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으나 급성장한 대학들로 여기에는 백석, 한동, 성공회 대학교 등이 있다. 이들 대학들은 건학 이념에 충실한 정체성 교육을 시도하고 있지만 급성장으로 인한 건학 이념에 충실한 정체성 교육 유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학문적 수준의 향상과 유지의 어려움과 더불어 특정 이념과의 밀착의 위험을 겪기도 하며 향후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한 학생 모집 정원 유지의 어려움에 노출될 수 있다.

임원택 교수는 『백석학원 40년사』에서 백석학원 40년을 돌아보며 10년 단위로 4가지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1976년에서 1985년은 복음전파의 터전을 마련한 시기라고 한다면 1986년에서 1995년은 학교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10년이었고 1996년에서 2005년의 10년은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학문연구와 교육을 시행한 시간이었다. 2006년에서 2015년은 개혁주의생명신

학 정립과 확산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백석학원 40년을 회고한 임원택 교수는 2016년 이후를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로 준비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담아 40년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고신대 원로교수이자 백석대 석좌교수인 이상규는 “한국 장로교신학사에서 본 개혁주의생명신학”이라는 논문에서 1990년대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교회의 정체현실과 신앙의 화석화 현상을 타계하려는 세 가지 시도들이 있었음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는 예배 방식의 변화였는데 이른바 ‘열린 예배’도 그 중의 하나였다. 이것은 전통적인 예배형식의 타파를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교회접근을 용이하게 해 주자는 구도자 중심의 예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모색은 프로그램 중심의 목회 혹은 교회 운영이었다. 이 시기 교회는 각종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여러 행사(event)를 기획하고 실행함으로써 교회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다. 한국교회의 수적 저하나 영적 침체를 해결하려는 세 번째 시도는 성령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한 모색이었다. 한국교회의 영적 침체의 원인은 전통적인 개혁교회 성령론에 있다고 보아 오순절 사건의 단회성 이론을 거부하고, 중생과 성령세례를 동일시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이상과 같은 3가지 시도는 나름대로 의미를 지니지만 한국교회가 처한 교회성장의 정체, 영적 침체, 교회지도자들의 윤리적 타락, 그리고 생명을 잃고 화석화된 신앙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바로 이런 현실에서 백석학원의 설립자인 장종현 박사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을 주창하게 된 것이다.

#### V.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주창

개혁주의생명신학은 새로운 신학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개혁주의신학에 생명을 불어넣자는 것이 개혁주의생명신학이요 개혁주의신학을 실천하자는 것이 개혁주의생명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신학으로 말하면 개혁주의신학만큼 좋은 신학은 없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설립자 장종현 목사는 2003년 11월 천안 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복음주의신학회 국제학술대회 폐회예배 설교에서 400여 명의 국내외 신학자들을 향하여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외치게 되었다. 적잖은 충격파가 있었고 반지성주의가 아니냐 하는 반발 또한 적지 않았다. 특별히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수들의 입장에서는 만약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신학교육을 그만 두라는 것이냐 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하기도 하였다.

2003년의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외침은 신학의 학문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라기보다는 학문으로만 흘러가는 신학에 제동을 거는 주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와 관련하여 생각한다면 설립정신인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이요 개혁주의생명신학의 필요성을 주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생명신학이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생태신학(Ecotheology)을 연상한다는 지적도 있었고 결국에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이라는 이름이 정착되게 되었다.<sup>17)</sup>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름

을 통해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으며 생명이라는 표현을 통해 현대적인 적실성을 함께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개혁주의생명신학은 일차적으로 백석학원에서 먼저 태동하여 이런저런 형성 과정을 통해 하나하나 모양을 갖추어가게 되었다.

개혁주의신학은 보통 장로교회에서 신중하는 신학을 가리킨다. 하지만 개혁주의신학을 신중하는 교회는 장로교회만이 아니다. 장로교회는 영국과 미국에서 주로 꽃을 피웠다면 개혁교회는 유럽 대륙 특별히 스위스와 네덜란드에서 꽃을 피웠다. 칼빈주의라고 하는 말은 개혁주의신학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주의신학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츠빙글리보다 한 세대 나이가 어렸던 칼빈의 이름이 개혁주의신학에 붙여졌던 것은 독일을 중심으로 한 루터교회 신학자들의 조금은 악의적인 의도가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라인강을 따라 북상하고 있던 개혁주의신학을 경계하기 위해 루터교 신학자들은 칼빈이 프랑스 사람인 것에 착안하여 개혁주의신학에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조롱하는 의미에서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칼빈은 말년에 자신의 이름이 붙여진 칼빈주의(Calvinism)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자 적잖이 당혹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칼빈은 그 누구보다 개혁주의신학의 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개혁주의신학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으리라 사료된다. 리처드 멀러(Richard A. Muller, 1948- )는 “‘칼빈주의자’가 칼빈의 추종자를 의미하고 ‘칼빈주의’가 칼빈 추종자의 신학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칼빈은 칼빈주의자일 수 없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sup>18)</sup>

일반적으로 칼빈주의 5대강령으로 알려져 있는 튜립(TULIP)교리는 1618년의 도르트 회의에게 결정된 도르트 신조(Cannon of Dordt)의 요약으로 알려져 있지만 1913년 이전에는 튜립으로 도르트 신조를 요약한 문헌을 발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도르트 신조를 튜립으로 요약하는 것은 조야한 요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sup>19)</sup>

개혁주의생명신학에서는 개혁주의신학을 칼빈주의 5대강령으로 이해하지 않으며 종교개혁의 5대 솔라를 개혁주의신학의 핵심적인 주장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입장은 1994년 필라델피아 10장로교회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James Montgomery Boice, 1938-2000)와 데이비드 웰스(David F. Wells, 1939- ) 그리고 마이클 호튼(Michael Horton, 1964- ) 등이 주도하여 결성된 고백적 복음주의자 연맹(Alliance of Confessing Evangelicals)의 공식문서인 캠브리지 선언(Cambridge Declaration, 1996년)에서 채택하고 있는 입장이다. 캠브리지 선언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대해 차례로 다루고 있다.

2010년 5월 21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백석전진대회에서 백석총회는 4만 여 명의 성

17) 백석학원 설립 30주년을 맞아 2006년에 발간된 『백석학원 신앙선언문』의 3부는 “생명신학 선언문” 인가 하면 1부 “우리가 걸어온 길”의 5장에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소의 혼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 Richard A. Muller, “칼빈은 칼빈주의자였는가?” 『생명과말씀』 5 (2012), 15.

19) 리처드 멀러는 “칼빈주의 전체를 1618-1619년 네덜란드에서 작성된 특별한 문헌과 연결하고 그 전체의 의미를 ‘튜립’으로 축소하는 것은 참으로 해괴한 비역사적 태도이다. 튜립의 화란어 단어는 ‘튜립’(tulip)이 아니라 ‘tulpe’(tulp)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칼빈은 칼빈주의자였는가?” 22)라고 말하고 있다.

도들과 함께 개혁주의생명신학을 교단의 공식적인 신학으로 대내외적으로 공포하였다.

개혁주의생명신학은 성경의 가르침과 개혁주의신학을 계승하여, 사변화된 신학을 반성하고, 회개와 용서로 하나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 생명을 회복하고자 하는 신앙운동이다. 그리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실현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를 위해 나눔 운동과 기도운동과 성령 운동을 통해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실천을 도모한다.

이를 통하여 제시된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은 다음과 같다: 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 영적생명운동, 하나님나라운동, 기도운동, 성령운동, 나눔운동.

4년여의 시간이 지나 2014년 11월 1일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은 ‘회개용서운동’을 세 번째 실천운동으로 첨가하고 다섯째 기도운동과 여섯째 성령운동을 하나로 묶어 일곱 번째 운동으로 분류함으로써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은 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 회개용서운동, 영적생명운동, 하나님나라운동, 기도성령운동이다. 개혁주의신학과 마찬가지로 개혁주의생명신학도 하나의 고정된 체계라기보다는 시대를 향해 열려 있고 얼마든지 수정과 보완이 가능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1년 11월 1일 백석학원 건학 45주년을 맞아 설립자 장종현 목사의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책이 발간되었고 2022년 6월에는 개정판이 발간되었다. 책의 서문에서 장종현 목사는 다음과 같이 책을 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sup>20)</sup>

지금 한국교회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이 문제의 책임이 바로 저와 같은 신학교 운영자에게 있다는 생각이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저의 외침은 신학교육에 대한 이런 반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외침을 통해 저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교수가 달라져야 하고 신학생들이 달라져야 할 것을 주장합니다. 누구를 비난할 의도는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살 길을 함께 모색하자는 제안이 핵심입니다. 신학교육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바른 신학교육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장종현 목사의 오랜 기간 숙고한 결과물이다. 2003년 한국복음주의신학회 국제학술대회 폐회설교를 시작으로 매년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신입생영성수련회를 통해 개정되고 발전되었다. 1부는 왜 신학이 학문일 수 없는지에 대해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담은 것이다. 여기에는 신학의 목적, 신학의 본질, 신학의 근거, 신학의 방향, 신학의 원리, 신학의 방법, 신학의 결과까지 신학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가 들어있다.

2부는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면 신학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라는 내용을 새롭게 설명한 내용이다.

개혁주의생명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신학교 강단에서부터 역사해야 한다고 외칩니

20) 장종현,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서울: 도서출판 UCN, 2022, 개정판), 8.

다. 성경의 진리보다 자신이 배운 신학을 앞세우는 잘못을 바로잡고 성경에 기초한 계시 중심의 신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학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될 때 비로소 영향력이 생깁니다. 단지 새로운 이론이나 학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sup>21)</sup>

특별히 3부 “백석총회의 미래 비전: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세계화”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라는 내용을 목회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제시한 것이다. 2023년은 총회설립 45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총회설립45주년준비위원회가 준비한 기념행사의 표어는 “개혁주의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다”이다. 2003년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작은 외침으로 시작된 개혁주의생명신학이 이제는 백석학원과 총회의 신학적 정체성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백석학원과 총회를 넘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로 그 지경을 넓히려 하고 있는 것이다.

#### VI.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세계화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기념 사업의 표어는 “개혁주의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다”이다. 어느 것이 더 우선적이냐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기는 하겠지만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라고 하는 것은 늘상 함께 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혁주의생명신학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그 지경을 넓히려 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16세기 츠빙글리와 칼빈의 개혁주의신학이 세계화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다. 독일에서의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츠빙글리와 칼빈은 스위스에서의 종교개혁을 주도하였다. 츠빙글리는 스위스의 동북부의 취리히에서 루터와 비슷한 시기에 종교개혁을 시작하였다. 그런가하면 칼빈은 스위스의 서쪽 극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불어권의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하였는데 루터나 츠빙글리보다는 20년 정도 뒤진 시대였다.

처음 개혁주의신학의 주도권은 제네바가 아니라 취리히에 있었다. 하지만 취리히의 종교개혁은 12년 만에 츠빙글리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고 그 후임자인 하인리히 불링거에 의해 계승되기는 하였지만 아무래도 개혁의 동력을 많이 상실해버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개혁 진영에 혜성과도 같은 인물이 등장하였는데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통해 온건한 복음주의 신앙을 개진하여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 칼빈은 1536년 『기독교 강요』의 초판을 발행하였는데 같은 해 제네바 종교개혁에 가담하게 되었다. 칼빈은 제네바의 개혁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나 제네바 시에서 추방되었다가 3년이 지나 다시 제네바로 복귀하였고 그 이후 죽을 때까지 제네바에서의 개혁을 30년 가까이 이어갈 수 있었다.

개혁주의신학은 이렇듯 츠빙글리와 칼빈에 의해 스위스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칼빈의 고국인 프랑스로도 유입되어서 위그노라고 하는 개신교도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들은 오랜 기간 가톨릭이 강세인 프랑스에서 박해를 받았고 1598년 앙리 4세의 낭트 칙령으로 신앙의 자유를 얻는 듯하였지만 1685년 루이 14세에 의해 낭트 칙령은 폐지되었다. 이때 수많은 개신교도들이 네덜란드 등으로 이주하였다.

21) 장종현,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143.

스위스에서 시작된 개혁주의신학은 프랑스와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 등지로 확산되었는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었다. 칼빈은 영국을 방문한 적이 없지만 그의 책은 국경을 넘어 도버 해협을 넘어 영국인들에게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다. 칼빈의 개혁주의신학을 추종하는 일단의 사람들에 의해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1세 시절 청교도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런 면에서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세계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주창자인 장종현 박사의 저서들을 영어로 번역하여 출간하는 일이다.

사실 개혁주의생명신학은 백석학원이나 백석총회 안에서마저도 제대로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백석총회 소속 목회자들 가운데 다수는 여전히 개혁주의생명신학이 무엇인지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백석학원에서도 개혁주의생명신학을 정식 커리큘럼으로 채택하여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2012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최근에 신학교를 졸업한 백석학원 출신의 소수 목회자들만이 개혁주의생명신학을 제대로 배우고 졸업을 한 것이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목회자 교육을 통해 백석총회 안에 개혁주의생명신학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야 한다. 일선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한 좋은 교재를 출간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백석정신아카데미에서 발간한 개혁주의생명신학 5대 솔라<sup>22)</sup>와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성경공부 교재와 2023년 개혁주의생명신학 45주년 기념구역공과인 『예수생명 예수생활』<sup>23)</sup>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유치부로부터 장년부에 이르는 계단공과를 개발하기 위한 총회 교육부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세대 교육의 문제는 우리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세계화를 위한 또 하나의 제안은 총회 선교사 훈련에서 개혁주의생명신학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서 선교 현지에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전진기지를 구축하는 일일 것이다. 이런 작업은 분파적인 정신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됨을 추구하는” 정신에서 이루어져야 함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결국 개혁주의생명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 VII. 개혁주의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다

2023년은 백석총회 설립 45주년을 기념하는 해이자 개혁주의생명신학 주창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목회자 영성대회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백석총회설립 45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 표어는 “개혁주의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다”이다. 1976년 대한복음신학교가 세워졌고 1978년 복음총회가 설립되었다. 학교나 총회의 이름에 모두 복음이 들어가 있다.

22) 장종현, 『생명을 살리는 성경공부 1-7』 (서울: 도서출판 UCN, 2019)와 『5대 솔라 성경공부 1-5』 (서울: 도서출판 UCN, 2020)를 보라.

23) 52주에 맞추어 7대 실천운동과 5대 솔라를 각각 4주씩 다루고 있고(48주)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4주) 등의 절기에 맞춘 구역공과에 설날과 추석 가정예배 교안을 담고 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백석학원이나 백석총회의 설립정신은 당시로서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이 아직 없을 때니까 “복음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장종현 목사는 2003년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통해 개혁주의생명신학의 필요성을 천명하였다. 설립정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보다 충실한 신학, 생명을 살리는 신학을 주창한 것이다.

로마서 1장 16절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자. 구원의 경륜에서의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설립자 장종현 총장은 먼저 세계를 생각하였던 것 같다. 선교사가 되려 하셨다. 그러나 신학교를 세워 복음의 일군을 키우는데 전념하였다. 민족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신 것이다. 그리고는 총회설립 45주년을 맞아 “개혁주의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자”라고 외치고 계신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개혁주의생명신학으로 그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선지자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평상시 같으면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해야 할 사람이었다. 그러나 당대 최강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침략은 에스겔의 일생을 바꾸어 놓고 말았다. 주전 597년 유다 왕 여호야긴과 약 1만 명의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이때 에스겔도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이때 에스겔은 이십대 중반의 나이였을 것이다.

주전 593년 에스겔은 서른 살이 되었다. 서른이라는 나이는 일반적으로 제사장으로서의 공식적인 직무를 시작해야 하는 나이였지만, 에스겔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몸이었기에 그럴 수 없었다. 결국 에스겔은 포로들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573년까지 줄곧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활동하였다. 에스겔의 고국인 유다가 멸망한 것이 주전 586년이었기에 에스겔이 선지자 일을 시작했을 때만해도 예루살렘 성전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에스겔은 상당 부분을 이때의 일에 할애하고 있다. 에스겔이 처음 본 환상은 성전에 흘러 들어온 우상송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가 전한 말씀의 핵심은 간단하였다. “예루살렘은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의 사역도 새 국면에 접어든다 (겔 33:21-22). 그 이전의 사역이 질책과 심판의 선포였다면, 이후의 사역은 용기와 확신을 심어 주는 것이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온 이들에게 미래의 회복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날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아마도 에스겔에서 가장 유명한 내용은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가 에스겔의 대언을 통해 뼈와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위에 힘살이 돋고 살이 오르고 마침내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자 살아 움직이는 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는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37장일 것이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할까?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말씀해 주신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겔 37:11-14).

그런가하면 에스겔 47장에는 회복된 새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세상을 살리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과 함께 에스겔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이다. 에스겔은 성전 입구에서 동쪽을 향한 바깥문 문지방 밑에서 아주 조금씩 샘이 솟아나 제단 남쪽으로 흐르는 것을 본다. 성전 안내자와 에스겔은 북문을 거쳐 바깥 길로 빠져나와 동쪽을 향하는데, 동문 아래서 물줄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성전에서 천 척을 들어갈 때 마다 발목과 무릎과 허리에 물이 차고 종국에는 헤엄칠 정도의 큰 강이 되는 환상을 보게 된다.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죽어가는 바다를 살리고 만국을 살리는 생수가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의 본문은 계시록 22장의 내용과도 유사하다. “1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 22:1-2).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죽었던 바다를 살리고 있다. 이 물은 일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의 설립정신은 복음이다. 학교 이름이 대한복음신학교였고 교단의 이름은 복음총회였다. 그러므로 “개혁주의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다”라고 하는 백석총회 45주년의 표어는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다”라고 할 수 있다. 그 시작은 심히 미미했다. 그런데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이내 큰 강을 이루어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었다. “복음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무릎꿇고 받은 사명”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